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의 노동시장과 학업 선택 요인

김 안 국¹⁾ · 신 동 준²⁾

요 약

전문계고졸업 여성청년들의 고등교육 진학과 취업 선택을 2004-2008년 KEEP 자료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친부친모의 가정환경일수록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며, 학력과 가구소득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8년 현재의 임금 수준은 취업자가 높지만, 조만간에 진학자의 임금이 취업자의 임금을 추월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 차이는 진학의 인적자본 증가 효과가 취업의 OJT에 의한 인적자본 증가 효과보다 더 클 개연성을 의미한다. 정부의 고등교육 기회 평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최근의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적정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I. 서 문

2008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87%가 전문대 이상 대학을 진학하여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고학력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사회의 모든 관심은 고등교육이수자의 실업문제, 학력과잉문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13%의 졸업생 중 일부는 취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들 역시 취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과 고등교육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혹은 노동시장에 나온 고졸 청년이 취업 지속과 고등교육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전적인 인적자본론은 개인들이 대학 교육의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대학교육 기대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경우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고 본다.(Becker, 1993. 4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인적자본론은 취업과 교육 선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부모와 학생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기업들의 고학력자 채용 선호의 관행이 취업과 고등교육의 선택에서 이미 한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선택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Spence(1973)의 신호기제 이론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즉 학생들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고등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교육(대학, 대학원)을 선택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졸업 시점에서 취업과 고등교육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가구소득이 고등교육 선택의 중요한 변인이 된다면, 이는 고등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있어야 한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취업과 고등교육 선택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의 전문계고 졸업생 여성청년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졸업시점의 취업과 진학 선택, 그리고 노동시장에 나온 후 취업지속과 고등교육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것이다. 인적자본론에 입각하면 기대수익의 차이가 중요하므로 아직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진학을 한 청년들과 취업을 지속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이하에서 먼저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들로부터 분석을 위한 변수를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변인 분석에 필요한 분석 틀 및 자료를 서술할 것이다. 취업선택자와 진학선택자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 지역특성에 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비교하고, 로짓 모형으로 여러 변수가 통제되는 가운데서 특정 변인의 효과를 볼 것이다. 취업자와 진학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매칭의 방법으로 비교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함의를 서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의 정리 및 연구 변인

취업과 고등교육의 선택에 대해서 인적자본론은 개인들이 대학 선택의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대학 기대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경우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때 교육으로부터의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에는 비금전적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개인의 특성(능력 및 선호), 가구 배경(부모의 학력, 소득, 종교), 지역적 특성(지역실업률 및 지역의 평균임금)이 개인들의 학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인적자본론은 고등교육 이수로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갖게 되어 기대수익이 커진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신호기제로 보는 Spence(1973)은 교육 이수가 개인을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교육 이수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본다. 그의 이론의 전제는 학교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취업생활에서도 잘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효율성의 표준보다 더 높은 (과잉)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본고에서 인적자본론과 신호기제이론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실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이론 모두 개인의 취업과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요인을 좁게 제한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보아 수익과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개인의 취업과 고등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먼저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약 조건이 된다. 즉 인적자본을 담보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자금 대부분은 항상 신용제약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전적 제약이 있으면 고등교육 선택은 제한된다. 이에 가구소득이 일정하게 낮으면 고등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된다. 개인의 선호도 중요한 요인인데 미래 선호가 강하면 고등교육을 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선호가 강하면 취업을 선택할 것이다.³⁾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부모는 자식의 인적자본투자에 관심이 많을 것이며, 어려서부터 학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노동시장에 나가는 것을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다.(Spagat, 2002) 부모의 구성도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며, 한국 사회에서 장녀 여부도 일정하게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은 대략적으로 인적자본론에 입각하여 취업과 고등교육 선택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취업과 학업 선택의 요인으로 학업성과 가족 배경을 실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NLSY 자료로 학생의 경로 결정을 연구한 Keane and Wolpin(1997)은 개인들이 재정의 제약하에서 재능이나 자질에 따라 학업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선택에서 Ellwood and Thomas(2000)은 가족 소득이 제약일 뿐이라고 보았지만, Spagat(2002)는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이 일정하게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고, Carneiro and Heckman(2002)는 신용제약이 고등교육 기회의 획득에 중요하며, 가족 소득이 학령기의 높은 질의 교육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Cameron and Heckman(1998)은 학업성취가 장기적 향상가구소득의 영향을 받는 가족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였다. 이상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학업성취와 가구 소득이 고등교육 선택에 주요한 요인이라 보고 있다.

취업의 시점에서 노동시장 상황은 취업과 고등교육 선택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Rice(1999)은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선택은 지역실업율과 정의 관계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armeci and Chies(2002)는 이탈리아에서 지역실업율은 고등 교육 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지역노동시장 상황이 고등교육 선택에 미치는 두 가지의 영향이 상반되기 때문이라 보인다. 즉 지역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바로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고 진학을 선택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것이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진학의 기회비용이 커지면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취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에 지역의 실업율이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Leslie and Drinkwater(1999)와 Rice(2000)는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그들의 노동시장 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대학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없었다. 장상수(2007)이 고등학

3) 이러한 선호가 인적자본론에서 미래가치의 할인율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진학과 학업에 두는 주관적 가치는 미래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별 편차가 심할 것이다.

교 계열 선택에 부모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등교육 및 인문계 고등학교가 팽창하는 가운데서 고학력 부모의 인문계고교 선택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방하남·김기현(2002)이 고등교육 기회의 차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을 보았지만 개인들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정리로부터 개인의 자질, 가구의 특성,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이 취업과 진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주요한 영향 변인이라 파악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가구 소득과 부모학력, 지역실업율이 취업과 진학 선택의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Becker(1993, 2장)에서 언급한 자녀의 수와 Cameron and Heckman(1998)에서 언급한 부모의 구성을 포함하고, 여기에 한국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변수인 장녀 여부도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분석에 추가하였다.

III. 연구 모형과 분석 자료

연구의 모형은 Rice(1999)가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치는 시점 t 에서 진학의 선택은 개인의 능력 θ 와 현재의 인적자본 $S(t)$ 하에서 향후 대학교육의 기대이익과 취업의 기대이익의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대학 선택의 기대이익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V^e(t) = C^e(t) + V^*(S(t) + I^e(\theta, S(t)))$$

여기서 C^e 는 대학 교육의 소비 효용이며, $I^e(,)$ 는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가분이다. $V^*(S + I^e)$ 는 할인된 인적자본의 가치이다. 반면에 취업의 선택은 향후 기대이익은 임금 소득과 인적자본의 증대의 기대가치로 구성된다.

$$(2) V^w(t) = w(\theta, S(t)) + V^*(S(t) + I^w(\theta, S(t)))$$

임금은 개인의 능력과 현재의 인적자본의 함수이며, $I^w(,)$ 는 OJT를 통한 인적자본의 증가분이다. $V^*(S + I^w)$ 는 할인된 인적자본의 가치이다. 선택은 $V^e(t) - V^w(t)$ 와 대학교육의 비용 비교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진학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의 증가분과 취업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의 증가분의 비교이다. 크게 보아 학교교육에서 축적되는 인적자본이 일반성을 가지며, 직장에서 형성되는 인적자본이 특수성을 가진다고 할 때 이러한 비교는 일반숙련의 가치와 특수숙련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선호 혹은 사회의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는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가구와 지역의 변수도 중요하므로 이들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고등교육과 취업 사이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잘 존재하지 않고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으로 약칭함)는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사가 되어 졸업 이후 취업과 진학의 선택, 그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과 학업 사이의 선택을 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여성 청년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성에 한정하는 이유는 현재 KEEP 자료에서 남성들의 경우 다수가 군대에 입대하고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계고에 한정하는 이유는 일반계고 졸업생의 경우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나오는 일이 드물며, 노동시장에 나왔더라도 대학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학에 우선권을 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계고에 한정하는 이유는 이들의 다수가 2-3년제 대학에 입학하며, 이에 대학 졸업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KEEP 자료에서 전문계고를 졸업한 여성청년들 중 2004-2008년까지의 시계열이 확보되는 사람은 729명이다. 이들의 지위 변화를 본 것이 <표 1>이다. 729명중 2005에 2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291명, 4년제 대학에 진학이 104명,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292명, 재수나 기타의 범주에 있는 청년들이 42명이다. 전문계고 여성 졸업자의 2005년의 진학률은 54%이다.⁴⁾

<표 1>을 보면 2008년 현재 2년제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180명,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들이 88명,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183명, 2년제 대학 재학 청년들이 50명, 노동시장에 있다가 2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청년들이 31명으로 나타난다.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문계고 졸업 여성 청년들은 진학 혹은 노동시장 선택에서 연도별로 다양한 선택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학업을 마친 뒤는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이 다수이지만, 일부는 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들을 진학과 노동시장 선택에 따라 그룹화하면 먼저 2005년 2년제 대학을 진학하여 졸업을 하고 노동시장에 나온지 2년차 되는 180명을 A그룹이라 지칭한다. 다음으로 2005년 노동시장에 나아가서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183명을 B그룹이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에는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이후 진학을 선택한 69명을 C그룹이라 지칭한다.

연구의 방법은 경험자료 분석으로 이들 그룹 A, B, C를 비교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분석하는 빈도분석의 방법과 A그룹과 BC그룹의 진학 혹은 노동시장 선택의 로짓 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A그룹과 B그룹은 노동시장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한다. 노동시장의 성과는 단순한 월평균 임금의 비교 및 동일 특성을 갖는 짝을 매칭한 뒤의 임금비

4) 2005년도 전문계고 여성졸업자의 진학률은 62%이어서 KEEP 자료의 진학률과 8% 난다. 그러나 가중치를 적용하여 KEEP 자료의 진학률을 다시 계산하면 59%가 되어 큰 차이는 나지 않게 된다.

〈표 1〉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들의 지위 변화(2005-2008년)

		변화 현황			그룹	빈도	퍼센트	
2년제 진학	2년제 재학					50	6.86	
	2년제 졸업	4년제 진학					3	0.41
			노동시장	노동시장			A	180
		2년제 진학					3	0.41
		4년제 진학					2	0.27
		재수					2	0.27
		기타	기타				8	1.10
			재수	재수			2	0.27
			노동시장				2	0.27
			기타	기타			5	0.69
		2년제 중퇴	노동시장	노동시장				4
	2년제 진학			2년제 재학			18	2.47
	4년제 진학			2년제 중퇴	노동시장		6	0.82
	기타						1	0.14
재수	2년제 진학				2	0.27		
4년제 진학	4년제 재학					88	12.07	
	4년제 중퇴	2년제 진학	2년제 재학				2	0.27
			2년제 졸업	노동시장			2	0.27
			2년제 중퇴	4년제			1	0.14
		노동시장	노동시장				6	0.82
			4년제 진학				1	0.14
	기타	노동시장				1	0.14	
	재수	4년제 진학				1	0.14	
	기타	4년제 진학				1	0.14	
	노동시장	노동시장				1	0.14	
노동시장	노동시장				B	183	25.10	
	2년제 진학	2년제 재학				31	4.25	
		2년제 졸업	4년제 진학				3	0.41
			노동시장				12	1.65
		기타				1	0.14	
	2년제 중퇴	노동시장				3	0.41	
	4년제 진학				C (69)	9	1.23	
	재수	2년제 진학	노동시장				7	0.96
			노동시장	노동시장			1	0.14
		기타	2년제 진학				1	0.14
기타	기타	4년제 진학				1	0.14	
	노동시장	노동시장				28	3.84	
재수	2년제 진학	기타				9	1.23	
		노동시장	노동시장			3	0.41	
	4년제 진학	2년제 재학				5	0.69	
		2년제 졸업	4년제 진학			1	0.14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2	0.27	
		기타				2	0.27	
		재수	재수			8	1.10	
기타	노동시장	기타				1	0.14	
		재수	재수			1	0.14	
	기타	노동시장	노동시장			1	0.14	
		재수	노동시장			1	0.14	
기타	노동시장	노동시장				4	0.55	
		기타				12	1.65	
	재수	재수				2	0.27	
		2년제 진학				1	0.14	
계						729	100.00	

교를 수행한다. 매칭의 방법은 성향점수의 차이가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짝을 찾는 유틸리티 매칭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 외에 현재 직장의 규모, 업종, 직종 등의 지표를 통해서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다.

연구의 방법은 경험자료 분석으로 이들 그룹 A, B, C를 비교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분석하는 빈도분석의 방법과 A그룹과 BC그룹의 진학 혹은 노동시장 선택의 로짓 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A그룹과 B그룹은 노동시장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한다. 노동시장의 성과는 단순한 월평균 임금의 비교 및 동일 특성을 갖는 짝을 매칭한 뒤의 임금비교를 수행한다. 매칭의 방법은 성향점수의 차이가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짝을 찾는 유틸리티 매칭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 외에 현재 직장의 규모, 업종, 직종 등의 지표를 통해서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다.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에서 개인의 특성으로는 학업성적(내신석차)를 활용하였고,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의 소득에 로그를 취하여 가구소득 변수로 사용하였다. 보호자의 구성변수로 친부친모를 1로 하고 편모, 편부 등 나머지는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학력변수로 고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초졸이하 더미변수와 중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학력을 변수로 사용한 것은 아버지 학력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빈도를 보이는 편모가구의 학생들이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다. 자녀수 변수는 2인 이하를 0, 3명 이상을 1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장녀 여부 변수로 장녀를 1, 차녀 이하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 변수로 지역의 실업율을 써야 하지만, 2005년의 지역실업율 자료를 구할 수 없어,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고용율을 구해 지역실업율을 대신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먼저 A, B, C 각 그룹의 개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고등학교시의 내신성적 분포를 가지고 각 그룹을 비교한 것이 <표 2>이다. 진학을 한 A그룹은 4등급과 5등급이 많으며, 노동시장에 지속하고 있는 B그룹은 4등급, 6등급, 5등급이 많다. 노동시장에서 학교를 선택한 C그룹은 4등급과 5등급이 많지만 1등급과 2등급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2> 고등학교 내신성적 등급(2학년 2학기)

등급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C) 노동시장 후 진학	전체
1등급(4% 이하)	1 (0.6)	0 (0.0)	3 (5.4)	4 (1.0)
2등급(4% 초과~11% 이하)	15 (9.2)	5 (3.1)	6 (10.7)	26 (6.8)

등급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C) 노동시장 후 진학	전체
3등급(11% 초과~23% 이하)	25 (15.3)	19 (11.7)	8 (14.3)	52 (13.6)
4등급(23% 초과~40% 이하)	41 (25.2)	39 (24.1)	13 (23.2)	93 (24.4)
5등급(40% 초과~60% 이하)	35 (21.5)	30 (18.5)	10 (17.9)	75 (19.7)
6등급(60% 초과~77% 이하)	19 (11.7)	34 (21.0)	9 (16.1)	62 (16.3)
7등급(77% 초과~89% 이하)	18 (11.0)	17 (10.5)	6 (10.7)	41 (10.8)
8등급(89% 초과~96% 이하)	7 (4.3)	12 (7.4)	1 (1.8)	20 (5.2)
9등급(96% 초과)	2 (1.2)	6 (3.7)	0 (0.0)	8 (2.1)
전체	163 (100.0)	162 (100.0)	56 (100.0)	381 (100.0)

각 그룹의 가구 특성을 비교한 것이 <표 3>에서 <표 5>까지이다. 먼저 보호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를 보면, 진학을 한 A그룹에서는 친부친모의 비율이 단연코 높다. 반면에 노동시장에 지속하고 있는 B그룹에서는 편부와 편모, 기타 유형의 가족 구성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에 있다가 진학을 택한 C그룹은 그 중간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편모 가정의 비율이 높다.

<표 3> 보호자 유형

유형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C) 노동시장 후 진학	전체
친부-친모	155 (88.1)	125 (68.7)	53 (77.9)	333 (78.2)
친부-계모/계부-친모/계부-계모	6 (3.4)	7 (3.8)	1 (1.5)	14 (3.3)
편부	4 (2.3)	18 (9.9)	3 (4.4)	25 (5.9)
편모	10 (5.7)	25 (13.7)	10 (14.7)	45 (10.6)
기타	1 (0.6)	7 (3.8)	1 (1.5)	9 (2.1)
전체	176 (100.0)	182 (100.0)	68 (100.0)	426 (100.0)

각 그룹의 아버지의 학력 분포를 보면 진학자들인 A그룹의 아버지는 고졸 학력이 많고 대졸학력도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B그룹의 아버지는 중졸과 초졸의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에 있다가 진학을 선택한 C그룹의 아버지는 중간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A그룹은 고졸이 많고 대졸도 상대적으로 많다.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B그룹은 중졸과 초졸의 비중이 높으며, C그룹은 중졸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4〉 부모 학력

학력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C) 노동시장 후 진학	전체
아버지	무학	1 (0.6)	1 (0.7)	1 (1.8)	3 (0.8)
	초등학교	15 (9.1)	37 (24.7)	13 (22.8)	65 (17.5)
	중학교	48 (29.1)	50 (33.3)	17 (29.8)	115 (30.9)
	고등학교	86 (52.1)	57 (38.0)	23 (40.4)	166 (44.6)
	2-3년제 대학	4 (2.4)	1 (0.7)	0 (0.0)	5 (1.3)
	4년제 대학	10 (6.1)	4 (2.7)	3 (5.3)	17 (4.6)
	대학원(석사)	1 (0.6)	0 (0.0)	0 (0.0)	1 (0.3)
	대학원(박사)	0 (0.0)	0 (0.0)	0 (0.0)	0 (0.0)
	전체	165 (100.0)	150 (100.0)	57 (100.0)	372 (100.0)
어머니	무학	0 (0.0)	0 (0.0)	2 (3.1)	2 (0.5)
	초등학교	30 (17.5)	39 (24.8)	10 (15.6)	79 (20.2)
	중학교	54 (31.6)	59 (37.6)	26 (40.6)	139 (35.5)
	고등학교	80 (46.8)	59 (37.6)	25 (39.1)	164 (41.8)
	2-3년제 대학	4 (2.3)	0 (0.0)	1 (1.6)	5 (1.3)
	4년제 대학	3 (1.8)	0 (0.0)	0 (0.0)	3 (0.8)
	대학원(석사)	0 (0.0)	0 (0.0)	0 (0.0)	0 (0.0)
	대학원(박사)	0 (0.0)	0 (0.0)	0 (0.0)	0 (0.0)
	전체	171 (100.0)	157 (100.0)	64 (100.0)	392 (100.0)

각 그룹의 가족 구성과 부모의 학력 분포로부터 가구 소득의 분포에도 일정한 차이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는 소득구간별 분포와 평균소득이다. 진학을 한 A그룹은 300~500만원 사이가 약 31%로 많으며, 반면에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B그룹은 100~200만원 사이가 48%, 100만원 미만도 18%가 되어 가구소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 나갔다가 진학을 선택한 C그룹은 그 중간의 소득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그룹의 평균 값을 비교해도 그대로 나타난다. A그룹의 평균 소득은 234만원, B그룹은 162만원, C그룹은 185만원이다. 각 그룹의 선택은 자녀 1인당 가구소득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1인당 가구소득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A)진학 후 노동시장	(B)노동시장 지속	(C)노동시장 후 진학	전체
100만원 미만	8 (4.6)	33 (18.3)	7 (10.4)	48 (11.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0 (34.5)	86 (47.8)	36 (53.7)	182 (43.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8 (27.6)	44 (24.4)	15 (22.4)	107 (25.4)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3 (30.5)	15 (8.3)	8 (11.9)	76 (18.1)
500만원 이상	5 (2.9)	2 (1.1)	1 (1.5)	8 (1.9)
전체	174 (100.0)	180 (100.0)	67 (100.0)	421 (100.0)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233.9	161.7	185.4	195.3
자녀 1인당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99.5	68.7	79.8	83.2

이상의 결과는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결과는 여타의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빈도 비교이기 때문에 여타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요인이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진학과 취업선택의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3 졸업시점에서 진학을 선택한 A그룹과 취업을 선택한 B, C그룹으로 나누어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진학과 노동시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학업성적 및 가구소득, 부모학력, 지역실업률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이 좋을수록 진학의 유인이 많으며, 당장 돈을 벌어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는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할 유인이 많을 것이다. 지역실업률이 높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힘든 취업난을 잠시 유예시키는 진학 선택이 관측되고 있지만, 지역실업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할 수 없다.

먼저 개인의 특성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모형 I이다.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은 1%로 작다. 예상대로 학교 성적은 노동시장을 선택하는데 0.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가구특성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취업과 진학의 선택을 본 것이 모형 II이다. 가구특성이 포함되면서 진학과 취업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7%로 크게 늘어났음이 주목된다. 또한 가구특성 변수가 포함되면서 개인의 학업성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기대한대로 가구소득이 높으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친모인 경우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수가 적으면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던 어머니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양의 부호를 보여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합하고 있다.

개인과 가구특성 변수에다가 지역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모형 III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그대로 이어서 지역의 고용률 변수는 취업과 진학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수 변수가 0.1 유의수준 바깥으로 유의성이 적어지고 있다.

결국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들의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가구 소득 및 가족구성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취업과 진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던 개인의 학업성적과 지역의 노동시장 변수인 고용률은 우리나라의 전문계고 졸업 여성 청년들의 취업과 진학의 선택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진학을 선택하여 취업을 유예하는 것, 높아진 기회비용으로 인해 취업을 선택하는 것에서 어느 우월한 방향이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가구소득이 주요한 영향요인이기 때문에 이는 가구소득->학력->가구소득->학력의 학력과 소득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방하남·김기현(2002)에서 이미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기회에서 사회계층간에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 전문대학의 진학에서조차 가구소득이 중요한 변인인 것은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 고교 졸업 당시의 취업과 진학 선택 요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상수)	1.089	.015	7.357	.000	6.755	.002
내신석차(%)	-.215	.065	-.181	.200	-.177	.211
월평균 가구소득			-1.142	.000	-1.142	.000
보호자 유형(친부, 친모)			-.694	.070	-.693	.070
어머니 학력(초졸 이하)			.296	.363	.282	.388
어머니 학력(중졸)			.365	.179	.364	.180
자녀 수(1~2명)			-.408	.098	-.401	.106
본인 서열(첫째)			.194	.441	.195	.440
지역 고용률					.148	.725
-2likelihood	516.400		424.393		424.269	
Nagelkerke R2	0.013		0.165		0.165	
Sample	381		341		341	

주: 종속변수(0=진학(A), 1=취업(B+C))

다음으로 취업을 선택한 B그룹과 C그룹을 나누어 노동시장의 지속과 진학을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진학이 1, 노동시장 지속은 0의 종속변수를 로짓으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7>이다. 여기서 의미있는 변수는 개인의 성적이었다. 즉 개인의 성적이 좋은 청년들이 진학을 할 가능성이 컸다. 가구소득 등 나머지 변수의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졸업직후에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는 가구소득이 결정적 변수인 것과 대비되어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개인의 능력이 주요한 진학과 취업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진학과 계속 취업의 선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상수)	-3.082	.001	-3.561	.069	-3.815	.217
내신석차(%)	.538	.021	.453	.061	.454	.060
월평균 가구소득			.260	.462	.263	.458
보호자 유형(친부, 친모)			-.092	.842	-.093	.841
어머니 학력(초졸 이하)			-.636	.174	-.641	.173
어머니 학력(중졸)			-.254	.506	-.251	.515
자녀 수(1~2명)			-.097	.782	-.094	.788
본인 서열(첫째)			-.202	.576	-.202	.576
지역 고용률					.059	.915
-2likelihood	240.920		211.755		277.744	
Nagelkerke R2	0.050		0.061		0.061	
Sample	218		188		188	

주: 종속변수(0=노동시장 지속(B), 1=진학(C))

그러면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들의 선택은 어떠한 노동시장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진학을 선택한 경우와 취업을 선택한 경우 현재 어떠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였는가를 본 것이 <표 8>과 <표 9>이다. 분석의 대상은 5차년도 자료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로 A그룹의 진학 뒤 졸업 후 취업한 129명(2명은 자영업으로 비교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함)과 지속적으로 취업해 있는 B그룹 108명이다.

먼저 업종별로 보면 진학자인 A그룹의 졸업후 취업은 신서비스업에 많아 2/3 정도나 되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많은 취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에 취업이 많다. 반면 B그룹 지속취업자들은 제조업에 많이 취업해 있어 절반을 넘고 있으며, 도소매업 취업도 약 15%로 많다. 취업의 직종별로 보면 진학자의 졸업후 취업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 28%로 가장 많으며, 보건, 의료관련직과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이 많다. 취업지속자들은 전기, 전자 관련직에 38%로 가장 많은 취업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에 23%, 영업 및 판매직 12%의 취업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진학 졸업자들은 10-29인 취업이 28%로 가장 많고, 취업지속자들은 1000인 이상 규모 취업이 39%로 가장 많다. 이 대규모 취업은 대략 전기전자 관련직 취업과 중복되며, 취업 사업체를 보면 S전자나 L전자 등 유수의 기업에의 취업이 다수이다.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나 정규직 취업에 있어서 대학 졸업후 취업자들보다 지속취업자들의 상용직, 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다.

<표 8> 취업자와 진학자의 노동시장 성과(업종, 직종, 규모, 종사상지위)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전체
업종	제조업	22 (17.5)	56 (52.3)	78 (33.5)
	전통 서비스업	20 (15.9)	25 (23.4)	45 (19.3)
	신 서비스업	84 (66.7)	26 (24.3)	110 (47.2)
	전체	126 (100.0)	107 (100.0)	233 (100.0)
직종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35 (27.6)	25 (23.1)	60 (25.5)
	보건, 의료 관련직	22 (17.3)	8 (7.4)	30 (12.8)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7 (13.4)	1 (0.9)	18 (7.7)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 (7.9)	13 (12.0)	23 (9.8)
	전기, 전자 관련직	3 (2.4)	41 (38.0)	44 (18.7)
	그 외	40 (31.5)	20 (18.5)	60 (25.5)
	전체	127 (100.0)	108 (100.0)	235 (100.0)
규모	1-4명	16 (12.6)	15 (14.0)	31 (13.2)
	5-9명	22 (17.3)	15 (14.0)	37 (15.8)
	10-29명	36 (28.3)	5 (4.7)	41 (17.5)
	30-49명	5 (3.9)	7 (6.5)	12 (5.1)
	50-69명	8 (6.3)	3 (2.8)	11 (4.7)
	70-99명	8 (6.3)	1 (0.9)	9 (3.8)
	100-299명	13 (10.2)	9 (8.4)	22 (9.4)
	300-499명	3 (2.4)	4 (3.7)	7 (3.0)
	500-999명	3 (2.4)	6 (5.6)	9 (3.8)
	1,000명 이상	13 (10.2)	42 (39.3)	55 (23.5)
	전체	127 (100.0)	107 (100.0)	234 (100.0)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전체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4 (88.4)	104 (96.3)	218 (92.0)
	임시직	14 (10.9)	4 (3.7)	18 (7.6)
	일용직	1 (0.8)	0 (0.0)	1 (0.4)
	전체	129 (100.0)	108 (100.0)	237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104 (91.2)	97 (93.3)	201 (92.2)
	비정규직	10 (8.8)	7 (6.7)	17 (7.8)
	전체	114 (100.0)	104 (100.0)	218 (100.0)

청년들의 취업과 진학의 노동시장성과를 가장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금지표일 것이다. 2008년 현재의 임금을 비교한 것이 <표 9>이다. 진학을 하여 고등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A그룹은 평균 132만원, 계속 취업한 B그룹은 146만원으로 계속취업자들이 14만원을 더 받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한 비교로 두 집단에 속한 개인 및 가구 혹은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 두 집단을 취업과 진학 선택의 <표 6>의 로짓 분석에서 나온 기대취업확률(성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을 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끼리 매칭을 하여 유사하지 않은 개인들을 제외하고 다시 평균 비교를 하였다. 두집단은 부록의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연히 다르다. 매칭은 옵티말 매칭의 방법으로 성향점수의 차이가 0.001과 0.005 이내에 들어가는 짝들을 매칭하였다. 이 매칭의 결과 0.001 차이의 경우 진학자들의 임금은 125만원, 지속취업자의 임금은 134만원으로 임금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 경우 매칭이 되는 숫자가 너무 적어 0.005 이내에 들어가는 짝들을 매칭해 보았다. 사례수가 늘어났지만 유사한 임금 차이를 보여 진학자는 129만원, 지속취업자는 1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칭을 한 뒤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동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진학의 효과가 더 클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표 9> 진학자와 지속취업자의 임금 비교(단순비교, 매칭비교 1, 2)

		(A) 진학 후 노동시장	(B) 노동시장 지속	전체
임금(만원)	단순 비교	131.8	145.9	138.3
	매칭 1 ¹⁾	125.4	134.5	129.2
	매칭 2 ²⁾	129.4	137.1	132.5

주: 1) 성향점수 차이 0.001 이내 매칭
2) 성향점수 차이 0.005 이내 매칭

위에서 지속취업자가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속취업자가 3년 이상의 근속자이고 진학자는 근속초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지속취업자들의 평균임금의 증가를 본 것이 <표 10>이다. 이 표에서 지속취업자는 3년 동안 37만원 정도의 임금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진학자들의 근속 초기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취업지속자 임금 증가의 특징은 근속 1, 2년차에 임금이 해마다 13~20만원 정도 증가하였지만, 근속 3년차엔 4만원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학자들이 향후 어떤 식의 임금 증가를 보일 것인지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임금 증가폭이 고졸자의 임금 증가폭보다 크다고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진학자와 지속취업자의 임금 크기는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 10〉 취업 지속자의 임금 증가폭

	2차년도(2005)	3차년도(2006)	4차년도(2007)	5차년도(2008)
월평균 임금(만원)	115.9	129.2	148.8	153.0

주: 취업지속자 중 2차년도에서 5차년도 모두 임금정보가 있는 44명에 대한 월평균임금의 증가임.

이는 졸업후 취업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에 나왔다가 다시 진학을 선택한 청년들과 계속 취업자의 임금 변화를 비교해 보아도 유추가 가능하다. 다시 진학을 선택한 48명 중 전문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8명이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73명과 임금을 비교한 것이 <표 11>이다. 이 표에 따르면 졸업후 취업시 지속취업자는 임금이 109만원, 진학자는 99만원으로 나타나 임금이 작은 것이 진학의 원인이었을 수 있고, 아니면 진학하기 전에 임시로 취업을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학 이후 취업시 임금은 140만원으로 지속취업자의 146만원보다 조금 적다. 이는 진학의 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도 진학자들의 임금 증가 폭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11〉 취업 지속자와 취업 뒤 진학 선택자의 임금 비교

	(B) 취업 지속자	(C) 취업 뒤 진학 선택자	전체
2차년도 월평균 임금(만원)	109.4	99.4	108.4
5차년도 월평균 임금(만원)	146.4	140.5	145.8

남기곤(2006)은 전문대학(특히 남성)의 교육성과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노동시장 성과가 외국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전문계고 졸업 여성 청년들에게는 진학의 효과가 취업 지속의 효과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즉 전문계고 여성 청년들에게는 고등교육 진학의 노동시장 성과가 취업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우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전문대학 진학의 효과가 취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근속(OJT) 효과 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학의 경우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혹은 전문대졸의 간관효과(skinship effect)를 얻었을 것이다. 취업 지속의 경우는 근속에 따른 OJT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계고 여성청년들의 경우 인적자본 축적의 효과

나 간판효과가 근속에 따른 OJT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도 김안국·신동준(2007)이 보였듯이 고졸 청년층의 주된 직업이 전기·전자부품 조립, 상점판매원, 경리사무원으로, 그러한 직종들이 OJT가 없거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진학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취업자보다 더 좋다는 것은 일반적 성격을 갖는 숙련의 인적자본의 형성이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숙련의 인적자본 형성보다 더 가치가 있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기술변화가 심한 경제 환경 하에서 일반적 숙련의 형성이 특정의 기업이나 업종에만 쓸모 있는 특수 숙련의 형성보다 기술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어

전문계고졸업 여성청년들의 고등교육 진학과 취업 선택을 2004-2008년 KEEP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친부친모의 가정환경일수록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 고등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며, 이에 학력과 가구소득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학자와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면 2008년 현재의 임금 수준은 취업자가 높지만, 조만간에 진학자의 임금이 취업자의 임금을 추월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는 진학의 인적자본 증가 효과가 취업의 OJT에 의한 인적자본 증가 효과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고등교육 선택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누리사업이나 BK사업에서 장학금 지원이 있지만 이는 해당되는 학교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직접적 장학 사업이 2007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으로부터 본격화되었고, 2009년 2학기부터는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1학기부터는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 제도는 현재 결코 낮지 않은 이자율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업은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화 차원에서 시중 이자율을 대폭 하회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도 그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안국 · 신동준. 2007.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125-147
- 남기곤. 2006.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경제와 사회』 제 70호. 141-167
- 장상수. 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118-146
- 방하남 ·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193-222
- Becker G. 1965. *Human Capital* 3th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meci G, Chies L. 2002. Education and local labour market: the case of Italy,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University of Trieste Working papers, DiSES85.
- Carmeron SV, Heckman JJ. 1998. Life cycle schooling and dynamic selection bias: models and evidence for five cohorts of American ma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262-333.
- Carneiro P, Heckman JJ. 2002. The evidence on credit constraints in post-secondary schooling. *Economic Journal* 112: 705-734.
- Leslie D, Drinkwater S. 1999. Staying on in full-time education: reasons for higher participation rates among ethnic minority males and females of young men. *Economica* 66: 63-77.
- Ellwood D, Thomas K. 2000. Who is getting a college education? Family background and the growing gaps in enrollment. In *Securing the Future: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Danziger S, Waldfogel J (eds). The Ru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 Keane MP, Wolpin KI 1997. The career decisions of young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3): 473-522.
- Rice P. 2000. *Participation in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How Much do Race and Gender Matte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 Rice P. 1999. The impact of local labour markets on investment in further education: evidence from the England and Wales Youth Cohort Stud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287-312.
- Spagat M. 2002. Human capital and the future of transition economies. CEPR Discussion Papers, 3517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3): 355-374.

❖ Abstra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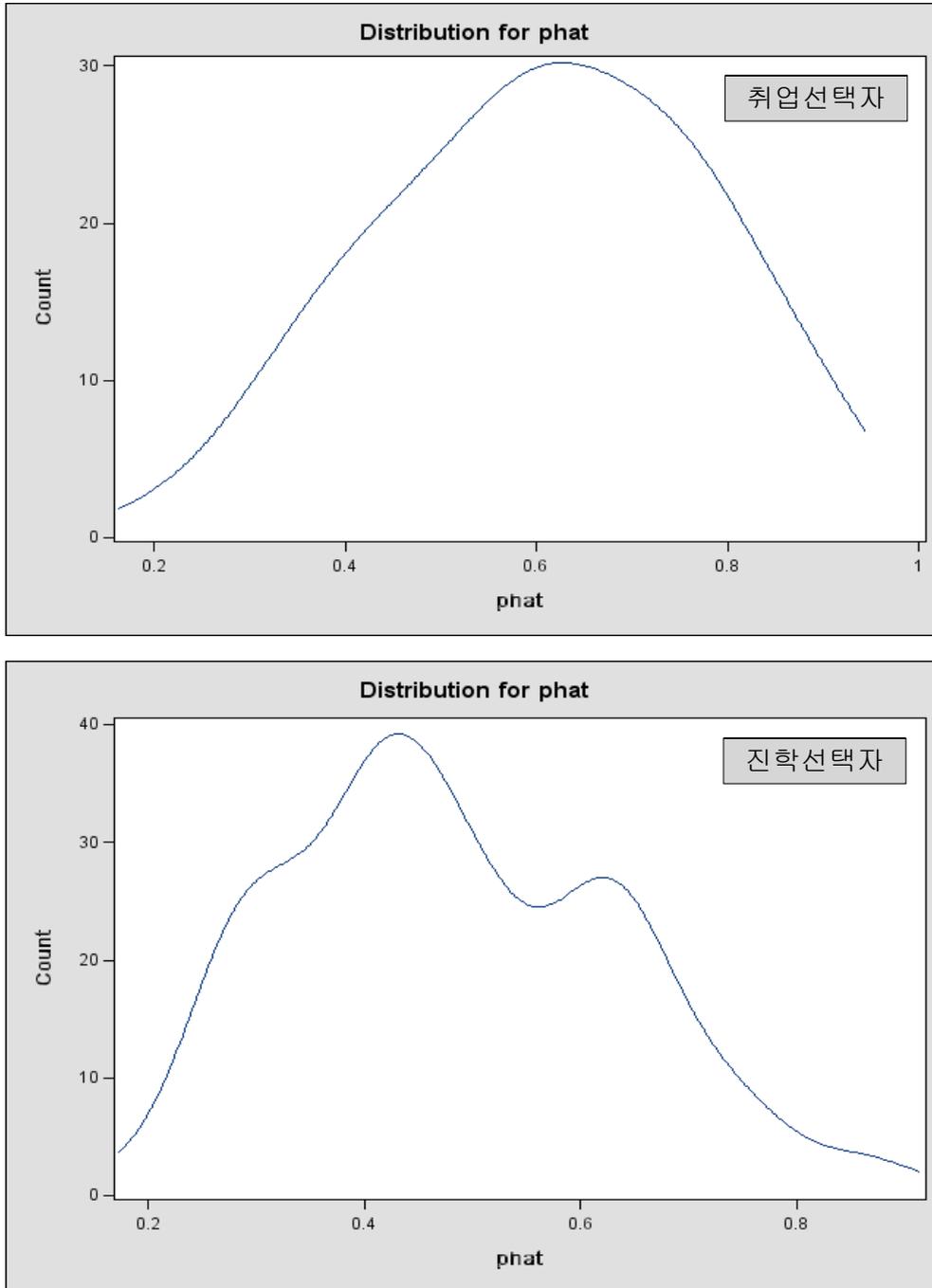
Choosing Higher Education or Employment of Young Women Adults - Korean Technical High School Graduates -

Kim Ahnkook, Shin Dongjun

This paper finds the factors of choosing higher education or employment. Using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2004-2008 surveys, we analyse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choice made by young women adults graduated from technical high school. The family's income influences the probability of taking of the higher education just after graduation. After entering into the labor marker, the high school achievement influences the choosing of higher education. As family's income influences the choice of hegher education, the family's income would like to perpetuate every generations. So the policy for equalizing the opportunity of higher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right away.

Key words: higher education, employment, family's income

※ 부 록 ※



〈그림 1〉 취업선택자와 진학선택자의 성향점수 분포